

# 강진의료원 간호사 출신 노동운동가 국회 입성

## 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종덕

함평출신 조선대서 간호학 공공의료 수호 노동운동가 전남도의원 후 수차례 낙선 지역의료 제도적 지원 온힘

“지역의료의 열악함과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대변자가 되어 발언을 이끌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간 팽팽한 다툼 속에서도 일선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강진의료원 간호사로 노동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전종덕 더불어민주당 주연합 비례의원 당선인이다.

통합진보당 출신인 전종덕 당선인은 비례대표 추천순위 11번으로 당선 기쁨을 누렸다.

특히 간호사 출신 노동운동가

로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 당선인의 국회 입성 소식에 그가 소속된 강진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간호사계에서는 환호의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1971년 함평에서 태어난 전 당선인은 광주여고를 졸업한 뒤 조선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강진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중 IMF기간 공공의료원 구조조정에 맞서 강진의료원 최초로 노조를 결성해 저항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뒤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마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는 민주통합당 배기운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사퇴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전남도의회의원 출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연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줄곧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그러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연합 비례대표 11번을 받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뺨지를 달게 됐다.

전 당선인은 “현재의 의료 분장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협업체를 구성해 단기적으로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국회에 알리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탄탄하게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종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진보당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윤희숙 통합진보당 상임대표 등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며 당원들과 만세를 부르고 있다. 전종덕 당선인 제공

## 최고령·최다득표... 올드보이 '화려한 귀환'

### 박지원 당선인

“대화의 정치 복원에 최선을”

“22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데 저의 모든 경험과 경륜을 쏟겠습니다.”

‘정치 9단’,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박지원 전 국경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최고령’, ‘최다 득표자’라는 타이틀을 따내며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했다.

해남·완도·진도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박 당선인은 광주·전남 최다선인 5선 고지에도 올랐다.

92.35%라는 전국 지역구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은 물론, 81세의 현



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인 타이틀까지 꿰찼다. 미국에서 사업가로 탄탄 대로를 걸던 박 당선인은 망명 중이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

14대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 문화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18, 19, 20대 총선 때 목포에서만 내리 3번 당선되는 등 터줏대감으로 인정받아 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일찌감치 고향인 해남·완도·진도에 출마 의사를 밝히며 서울과 지역구를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왔다. **곽지혜 기자**

## 전남서 46년 만에 여성 지역구 의원 '영예'

### 권향엽 당선인

“중앙정치 경험으로 지역발전”

“사회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불모지였던 전남에서 46년 만에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당선인은 여야 격전지로 꼽힌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경쟁자를 따돌리며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전남지역 여성 국회의원의 당선은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의 김윤덕(나주·광산) 의원 이후 46년 만이다. 광양 출신으로 금도초·태극중·순천여고를 졸업하고 이



화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권 당선인은 1987년 평화민주당 입당을 통해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21대 선거에서도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를 경선에서 참여했으나, 서동용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권 당선인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노동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다.

**곽지혜 기자**

## 지역 최연소... '3전4기' 여의도 입성 성공

### 정준호 당선인

“청년 추진력 보여주겠다”

4·10 총선에서 광주·전남 최초로 1980년대생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의 정준호 당선인이다.

정 당선인은 올해만 43세로, 광주·전남 지역 최연소다. ‘말바우 변호사’로 불리는 정 당선인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35세였던 정 당선인은 민주당 공천장을 쥐고 여의도 입성에 도전했지만 국민의당 김경진 후보에게 첫 고배를 마셨다.

이어 21대 선거 때는 당내 경선에서 조오섭 후보에게 패배했으



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호남권 유일 청년후보로 광주 시장에 출마했지만 컷오프됐다. 정치입문 후 세번의 고배를 마신 그는 수 년 동안 지역구인 말바우시장 상인 등의 법적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주며 지역 민심을 파고 들었다.

민생 대변인을 자처한 그는 북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8년을 준비하는 등 긴 도전 끝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정 당선인은 “호남 유일의 청년 당선인으로서 추진력과 돌파력으로 지역이 처한 문제,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에 답을 내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실투자금 700만원으로 꾸준한 평생소득!

연금보다 든든하고, 오피스텔보다 확실하고  
주식투자보다 높고, 은행적금보다 안전한  
**스마트 365 일세삼 투자!**

**1구좌 3,000만원 투자 시**

- 3년 후 2,300만원 반환
- 3년간 실투자금 700만원 1년 임대료 600만원
- 실투자금 기준 3년 누적 수익률 257.1% 연간 수익률 85.7%

\* 상기 CG 이미지 및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성공을 위한 똑똑한 투자원칙

투자 3대 법칙

매월 임대료 50만원 보장  
**3년 수익 총 1,800만원**

일세삼 30뿌리 & 황제옥고(경옥고) 12BOX  
**2,400만원 상당 혜택 제공**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약속  
**금융권 이행(지급) 보증서 발행**

오피스텔, 은행, 채권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스마트365일세삼!

구분	오피스텔	은행 적금	국공채(3년)	주식	스마트365일세삼 (임대료)
투자금	1억 5,000만원	2억 1,000만원	1억 7,900만원	4,900만원	<b>초기투자 3,000만원 (실투자금 700만원)</b>
월 기대 수익금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b>50만원(임대료)</b>
수익률 (년)	4%	2.84% *2023년 상반기	3.35% *2023년 12월	14.65% *2023년 상반기 개인투자자 연평균 수익률	<b>85.7% *실투자금 기준 연 수익률</b>
안정성	보통	높음	높음	낮음	<b>높음</b> *금융권 이행(지급)보증서 발행

[청약안내] \*미 계약 시 청약금은 반환됩니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청약금	예금주
신한은행	100-036-894285	100만원	(주)일세삼

똑똑한 투자원칙 - 스마트365일세삼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18 을지스타빌

문의 02-2268-3335